

영(靈)

| 김흥호 | 이화여대 명예철학 박사

내가 나 아닌 것이 될 때 진짜 내가 되는 이치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요한복음 6:60~65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9절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와 요한복음 6장 63절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지녔다”에서 <영靈>이라는 말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영에 관해서는 특별히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영의 이치’라고 해서 영리학(靈理學)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넓게 연구가 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입니다.

영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동그라미지요. 수학으로 말하면 동그라미를 영(零)이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모든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모든 숫자를 담고 있는 그릇이 영입니다. 이 모든 수의 근거가 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영이 없으면 수가 성립이 안됩니다. 영이 없으면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안되지요.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영이래야 수학이 성립되지,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영이라는 것이 없어서 하나에서 하나를 빼지 못했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이 영이 제일 먼저 발달된 곳이 인도이고, 그다음 영이라는 생각이 아랍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아라비아 숫자에서 비로소 영이라는 동그라미가 생기고, 그것이 서양에 들어와 서양 수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동그라미는 이 세상에서는 가장 무시되기 쉬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에다 동그라미를 덧붙여 놓으면 아홉보다 더 커져요. 열이 되고 말지요. 이 영이 하나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 뒤에 있으면 열이 되고 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은 철학적인 개념으로는 자유라는 말이고, 수학적으로는 영이며, 성경에서는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이 키에르케고르(Sren A. Kierkegaard)의 말로 하면 “관계가 자기 자신에 관계한다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고, 달리 말하면 “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종합”이고, 영이라는 말 대신에 사랑이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에 관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때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있었겠어요?

세계적 천재인 파스칼과 데카르트가 수학에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논쟁하기 위해 만났는데 낮에 아무리 논쟁해도 끝이 안 나서 밤을 새고 또 끝이 안 나서 이틀 밤을 새웠고, 한 번 만나 안돼서 두 번째 다시 만났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면 이렇게 또 어려운 문제가 없겠지요.

즉비(卽非)의 논리란 결국 영이라는 말인데, 수학적으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zero)라는 뜻입니다. ‘즉’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고, 그래서 논리학에서는 $A = -A$ 이렇게 표시해요. 그것을 우리말로 표시할 때는 “A는 A 아닌 것이다”가 됩니다. 즉, 모순의 자기 통일이지요. A는 A가 아닌 것이니까, 이래서 키에르케고르의 말로 “관계가 자기 자신에 관계한다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나는 나 아닌 것이 나다” 그러니까 내가 나 아닌 것이 될 때, 그때가 진짜 나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기 자신이 아닐 때 어머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어머니가 아니지요. 어머니는 자기 자신이 아니고 어린애를 생각할 때, 그때가 어머니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나 아닐 때 내가 됩니다.

예수가 예수일 때는 예수가 아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 예수입

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정반대의 개념인데, 이 두 개념이 하나로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로 표시가 되지요. 그러니까 나는 나 아닐 때 나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나 아닐 때 나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건데 그 믿음을 잘 분석해보면 그런 말로 표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 아닐 때 나다. 그것을 한문자에서는 ‘무아(無我)’라고 쓰지요. 무아가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나이고, 어머니란 결국 무아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어머니는 자기가 없을 때 진짜 어머니가 되는 거니까, 나는 나 아닐 때 나다. 이런 생각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절대 잘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라는 말도 내가 나 아닐 때 나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말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 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그 말은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울에게서 는 나 아닌 거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아닌 것이 될 때, 그때 진짜 나이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바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바울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선악과를 따 먹었다고 하지 않고, 안다고 하는 열매를 따 먹었다 이릅니다. 우리가 안다, 잘났다 하기 때문에 빠져 죽는다 이거지요. 잘났다고 하는 생각이 없이 머리를 숙 물에—하나님 앞에—겸손히 집어넣고 일생에 한 번, 나는 하나님께 졌다,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사람의 제일 큰 단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누구한테 졌다는 소리를 안해요. 졌다는 소리를 안하고, 실컷 얻어맞고도 두고 보자고 해요. 두고 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얻어맞았을 때,

그래 내가 졌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이란 무엇인가. 졌다 이거예요.

모세는 호렙 산에서 하나님께 졌다. 이긴 건 누군가. 하나님이 이겼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졌다라고 했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에게 졌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졌다는 소리지요. 나는 노예다. 그럼 이긴 건 누군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주님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베이컨(Francis Bacon)이 자연과학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은 자연에 지배됨으로써 자연을 지배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사람이 자연법칙 앞에서 졌으므로 자연법칙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연법칙에 복종함으로써 자연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주산을 놓다가 틀릴 때 탁 털면 영이 되지요. 우리가 졌다 하고 한번 제로로 돌아가는 셈이예요. 언제나 누구와 싸우다가 “애, 내가 졌다” 하고 제로로 탁 돌아가고, 그다음에는 “너, 나보다 세다. 나 이제 네 말을 들을 테니까 나 좀 도와줘” 그렇게 하면 사제 관계가 된단 말입니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자꾸 도와서 길러줘요. 그렇게 하여 나도 강해지는 것이지요.

모든 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여 계승됩니다. 유도니, 검도니 다 그것이지요. 한 번 시합을 해보고는 졌다, 넌 5단이고, 난 3단이다. 난 이제 졌다, 그럼 가르쳐다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워야 4단, 5단 그렇게 자꾸 올라가지, 두고 보자 그러면 밤낮 3단이지 언제 발전이 됩니까.


사람이란 한 번 딱 져야 되는데, 졌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서 쉽지가 않아요. 교만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졌다는 말을 절대 안

한다 이거지요.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결국 진리 앞에서 졌다는 것이거든요. 졌다면 머리를 숙이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두고 보자 하니까 배울 사이가 없는 거지요. 밤낮 두고만 보자는 거예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다가 밤낮 치고 받고 그러다 사색당파가 됩니다. 그렇게 밤낮 사색당파로 싸우다가 이씨조선이 망하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대로 통일되려면 언제나 깨끗이 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배워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 근성으로, 민족 근성으로 서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근성이 생기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살 길이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별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졌다, 나는 종이다, 당신은 주님이다. 이렇게 해서 언제나 저 은 백이 되고, 나는 제로가 되어야 내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발전이 있게 됩니다. 밤낮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해서 되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졌다는 소리를 하기 전에는 크리스천이 되지를 못합니다. 크리스천이 되질 못하면 나는 발전을 못합니다. 나는 자라질 못해요.

결론으로 한마디만 하겠는데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선생님한테 졌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학교 학생 가운데 선생님한테 졌다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더 쉽게 말해서 내 선생님은 누구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나라 학생 대부분은 많은 선생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선생을 가지고 있진 못해요. 선생은 있지만 스승은 없다는 거지요. 나한테 이긴 사람이 곧 스승이에요. 스승이 없다는 말은 난 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자가 없어져요. 학교는 있는데 교육이 없어요. 비참한 현실이지요. 나 자신이 제로가 되어서 무아가 되어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다 내꺼야” 이렇게 되어야

지, 내가 너한테 배우다니, 이런 식으로 되면 사람이 안돼요.

공자는 세 사람만 가도 반드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선생일 거라고 그랬어요(三人行 必有我師).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오면 배워야지요. 그렇게 언제나 배울 각오를 하고, 나 자신이 제로가 되면 나는 한없이 발전할 수 있지만, 배울 생각을 못하면 계속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제로가 된다, 무가 된다, 무아가 된다는 것은 나는 나 아닌 것이 나라는 말입니다. (끝) 

- 이 글은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흥호** | 다석 유명도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향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현재 김흥호 선생은 매주 일요일 이화여대 교회에서 성경과 동양의 고전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김흥호 사상전집 기독교 설교집 2

김흥호 저 | 사색 권 | 7,000원



김흥호 사상 전집 기독교 편의 두 번째 설교집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김흥호 사상 전집>은 김흥호 선생의 50여 년간의 모든 강의와 설교 및 저서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는 설교라고 하지만 기독교인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삶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풍부한 비유를 통해 쉽게 풀어 간다.